

◆ 광 고

1. 2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2. 오후 예배 찬양은 **할렐루야 찬양대**입니다(오후2시, 소망관).
3. 오후 예배 후 2016년 하반기 장학금수여식이 있습니다.
4. 학습 및 세례 대상자 신청(학습, 유아세례, 세례, 입교)
▶ 신청기간: 10월9일(주)일까지 ▶ 신청: 교회사무실 및 교역자

◆ 교인동정

- *생일축하 : 소용섭, 우은정, 이정숙, 이지영, 전동여, 정옥근
- *식사대접 : 장선미집사(배사범집사)/지난 장례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교인동정

- *충청노회 여전도회 연합 체육대회
▶ 일시: 10.6(목) 오전11시(교회출발:10시20분) ▶ 장소: 대청호 서편 잔디공원
▶ 회비: 1인당 3천원 ▶ 준비물: 중식도시락(취사불가), 돗자리, 식수, 간식등

◆ 교회기도제목

1. 대전과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의 생명 빛을 비추는 대전신일교회가 되게 하소서.
2. 대심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각 가정을 믿음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3.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과 수험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옵소서.
4.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치유 받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 모임 / 청지기안내

이번 주 청지기		담당	9월 청지기	담당자
주일	이번주	제4여전도회	안내	1부 박영숙A, 임희자
새벽찬양	다음주	제5여전도회		2부 정영주, 신선화
수요찬양		남1, 2목장	헌금	1부 박영숙A, 임희자
식당봉사		3여전도회		2부 이승효, 오승엽, 이진석, 광복님, 주정주, 하문숙

◆ 10월 교외행사

- 2일/ 신일비전헌신예배, 정기제직회 • 11일/ 각 기관 월례회
- 10~11일/ 정기가을노회 • 16일/ 제8여전도회, 1청년회 헌신예배
- 30일/ 정기당회

1부 : 오전 9시 인도 권 칠 현 목사
2부 : 오전11시 설교

♣ 사도신경 다같이

♣ 찬 송 다같이

1장
93장
38장

기 도 1부/안재경 장로
2부/박근용 장로

성경말씀 인도자

시편 121:1~8 (구 P897)

찬 양 1부/호 산 나 찬양대
2부/할렐루야 찬양대

말씀선포 설교자

지키시는 하나님

기 도 설교자

찬 송 384장다같이

헌 금다같이

감사와 축복 인도자

♣ 찬 송..... 주기도문송다같이

♣ 축 도 설교자

광 고 인도자

✚ 다음주 기도 1부/ 양문주 장로
2부/ 원용국 장로

♣ 표는 일어나 주십시오

오후 3시 인도 백 진 국 강도사
설교

예배선언 인도자

다함께 찬양을...

기 도 박범진 집사

성경말씀 인도자

마가복음 2:23~28 (신 P56)

찬 양 할렐루야 찬양대

말씀선포 설교자

주일이 나를 지킨다

찬 양 43장다같이

광 고 인도자

축 도 담임목사

2016년 하반기 장학금수여식

✚ 다음주 기도/ 우수완 집사

오후 7:30 인도 권 칠 현 목사
설교

목 도 다같이

찬 송 384장 다같이

기 도 신선화 집사

성경말씀 인도자

사사기 15:1-8 (구 P387)

말씀선포 설교자

자신감(3)

목장찬양 남 1, 2 목장

축 도 설교자

기 도 회

✚ 다음주 찬양 / 남 3, 4 목장

✚ 다음주 기도 / 김신혜 집사

참된기도

하루 중에 가장 많이 대화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니 그것보다 누구와 가장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까? 우리가 진실 된 마음의 대화를 나누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 진정한 친구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이 바로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넓은 숲속에 조그만 움막을 지어놓고 혼자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식사하기 전과 잠자기 전에 꼭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어릴 때 배운 기도만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는 기도를 할 때마다 유리병에 호두를 넣어서 기도하는 횟수를 세어보기로 하였습니다. 날이 지나자 호두는 여러 병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유리병이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그는 만족을 느꼈고 마음이 거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호두알로 가득 찬 병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호두알 하나마다 한 번의 기도를 나타냅니다.”
“망치를 가져다가 호두알 하나하나를 깨뜨려 보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호두알을 깨뜨려 보니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껍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기도는 이 호두처럼 다 비어있네. 자네는 기도의 횟수와 말은 많았지만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가 있었네. 기도란 말을 많이 하는 것 보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의 참된 의미를 갖고 있네?”

‘후안 까를로스 오르피즈’ 목사님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중에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잠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위의 호두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 줍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본질을 떠나 헛되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령께서 믿는 신자들 안에 내주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셔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대화에서 진심이 중요하듯이 참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대화해 보십시오.

◆ 십일조헌금

강성우(오이진), 강예림, 강예종, 강춘자, 김나경, 김명숙, 김선화, 김성원, 김영필(심남희), 김진승(윤라미), 남영순, 박석문(정인선), 박영숙A, 백진국, 송경희, 신금순, 안재경(정은숙), 오만옥, 우수완(유지수), 유태환, 이도화, 이승효(성월용), 이진석(윤혜진), 이태곤(엄경지), 이혜숙, 임응천(정분희), 정인택(이정숙), 채재규, 함돈수(곽정자), 함정인, 함정혁, 무 명

◆ 감사헌금

강성우(오이진), 강예림, 강철원(이지영), 강하전, 권철현(박춘화), 김경숙, 김대윤(박채리), 김명권(정영주), 김선옥, 김시영(이지향), 김종남, 김진승(윤라미), 남동균(윤현덕), 남영순, 마주성(김선영), 박근용(최윤자), 박석문(정인선), 박순국(조수정), 박은정, 박진우(김혜정), 배시범(장선미), 서정민, 성형건(윤송희), 소재역(김미화), 신소저, 심희숙, 안재경(정은숙), 안진성, 양문주(권유순), 오승엽(김영희), 원용국(김복금), 유태환, 이규홍, 이수영(권월성), 이은화, 이태곤(엄경지), 전동여, 정영모(이윤희), 정옥근(이경미), 정재안, 채재규, 최영준(한은정), 최옥자, 한영실, 함돈수(곽정자), 함완식, 무 명

◆ 선교헌금

강성우(오이진), 김성원, 김영필(심남희), 신동명(강경숙), 안경환(송명남), 이수영(권월성), 정옥근(이경미), 정대수(김정희), 최영준(한은정)

◆ 일천번제헌금

김건국(김성옥,도희), 안재경, 윤혜진, 이영일(홍은미), 이재현(리희), 장은숙(안소연,진형,진성), 정옥근

◆ 비전헌금

권철현(박춘화), 안경환(송명남)

◆ 장학헌금

강성우(오이진), 정옥근

◆ 목적헌금

강성우(오이진)

9.12(월)~9.18(주)

초원	목 장	모인곳	출석	헌금	성경	다음장소	초원	목 장	모인곳	출석	헌금	성경	다음장소
남1초원	1 김종남	교 회	8	24,000	455	교 회	여3초원	5 김채옥	교 회				교 회
	2 강일창							6 고숙자	교 회				교 회
남2초원	3 양문주	교 회	2	13,000	15	교 회	여4초원	7 곽복남	교 회				교 회
	4 우성한	교 회	3	15,000	23	교 회		8 구남량	교 회				교 회
남3초원	5 남동균	교 회				교 회	여5초원	9 김복금	안재경	2	3,000	10	교 회
	6 안재경	교 회				교 회		10 함현숙	교 회	1	5,000	10	교 회
남4초원	7 오승엽	교 회				교 회	여6초원	11 윤현덕	교 회	3	10,000	20	교회
	8 소재역	교 회				교 회		12 장은숙	교 회	2	5,000	10	교 회
여1초원(실버)	1 김명자	교 회				교 회	여7초원	13 신윤경	교 회				교 회
	2 김명숙	교 회				교 회		14 이경미	교 회				교 회
여2초원(실버)	3 권월성	교 회				교 회	여8초원	15 오이진	교 회				교 회
	4 정채순	교 회				교 회		16 김춘복	교 회	2	10,000	20	교 회
1청년	청년 박진우	교 회	8			교 회							